

## 행정 경계지역에서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 영·호남 경계지역 중심으로

박정희 ■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묵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국문요약〉

본 논문은 광역 단위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한 영·호남 경계지역에서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일상생활 공유 및 각종 친선 교류를 통해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영·호남 경계지역에서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 실시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투표구별 개표 자료를 활용하여 집합자료를 살펴보고 해당 지역에서 지역 우세 정당의 유권자 지지 패턴을 분석한다. 집합자료 분석 결과, 첫째, 영·호남 경계지역 분석 대상 9개 시·군 26개 읍·면 지역 중 영남 3개 읍·면, 호남 12개 면 지역에서 지역 우세 정당에 대한 지지를 이탈하는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영남 속의 호남, 호남 속의 영남”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다만, 이러한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은 인접 지역 읍·면 쌍방 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다양한 친선 활동, 지리·지형적 영향이 지역주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인접 읍·면 지역 간 자매결연, 친선 활동 등 교류가 이루어졌거나, 이웃지역과 산, 강과 같은 지형적 장애요소가 없는 지역에서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의 강도가 강했다.

\*주제어: 지역주의, 투표 행태,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 행정 경계지역

## I. 서 론

한국에서 지역주의<sup>1)</sup>는 오랫동안 유권자 표심 확보 전략으로써 활용되어 왔

\* 주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E-mail: afresh01@naver.com)

\*\*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E-mail: jaemook@gmail.com)

다. 많은 정치인들은 매 선거 때마다 지역주의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이른바 “집토끼 잡기”, “텃밭 다지기” 등을 외치며 지역주의를 주요 득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 대결에 앞서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것은 특정 개인이나 정치집단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악용한 측면이 없지 않으며, 유권자들이 그에 순응하거나 동조하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오수열·이계만 2000; 원한식 1987).

이러한 현상은 20대 대통령 선거운동에서도 관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서 첫 지역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호남 없이 민주당이 없다.”라고 유세하며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의 호남 유권자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충북 충주가 장인의 고향임을 내세우며 충청 유세 중에는 “충청의 사위”라고 지역적 연고를 강조하였다. 또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지역 순회 일정으로 충청을 방문하여 자신의 뿌리가 충청도임을 강조함으로써 ‘충청대망론’을 띄우며 충청 지역민심을 공략하였고, 공동 선거운동 시에는 첫 유세지역을 전통적 보수지역인 부산에서 시작함으로써 보수 표심을 결집시켰다(배민영 외 2021). 비록 중도 사퇴하였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산 유세에서 “저는 부산의 아들이다. 할아버님이 부산상고, 아버님이 부산공고, 제가 부산고를 나온 부산 토박이”, “저는 뺏속 깊이 부산 사람이고, 서울에서, 중앙에서 정치하면서 부산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며 자신이 부산 출신임을 강조하였다(강민혜 2022). 이와 같이 정당별 영·호남 지지 기반 지역주의 또는 출신지 중심의 정서적 지역주의는 득표전략으로써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주의가 선거와 정당정치에서 주요 변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균열의 부상과 활발한 정치사회화를 통한 집단 구성원 간 정치성향의 수렴으로 인하여 지역주의 투표가 완화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즉, 지역 균열을 대신하는 세대·이념·성별 등 다양한 균열이 등장하였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상호 접근성 증가, 다변화된 가정·이웃관계 형성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한 정치적 과정이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주의 완화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 상호 접근성 증가 혹은 이웃관계 형성에 주목하였다. 세부적으로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일상생활 공유 및 각종 친선 교류를 통해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영·호남 경

1) 본 연구에서의 지역주의는 “지역주의 투표”로 한정한다. 정재도·이재복(2018)은 지역주의 투표를 “자신이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의 후보 여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계지역에서 지역 우세 정당의 지지를 이탈하는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sup>2)</sup>

현행 우리의 행정구역은 조선시대 후기인 1896년 8월 4일 반포된 13도제를 모태로 하여, 일본 식민지 시대 근대 행정조직편제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도·시·군·면·리(동) 체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고전적 행정구역 체계의 고착 상태에서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이동, 교통·통신시스템의 발달 등으로 인한 기존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새로운 생활권 개념이 국지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김광동 2006). 이에 정부는 산업화·도시화 등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정도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재홍 2011). 이에 따라 어떤 지역에서는 고유의 지역 특색이 이웃하는 지역과 혼재되는 상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주의 투표 성향도 뒤섞일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인접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장보기, 오락, 통근, 결혼, 연애, 이주, 화합행사 등을 함께 하는 행정 경계지역에서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확인함으로써 이웃지역과의 일상도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상호 접근성이 좋고, 이웃관계 형성이 용이한 행정구역상 경계지역에서의 지역주의 투표 성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2장에서는 지역주의의 완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행정 경계지역의 지역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집합자료 분석 방법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2000년대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개요 자료를 토대로 경계지역의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4장에서의 경험적 발견을 바탕으로 영·호남 경계지역에서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차후 지역주의의 공간적 이웃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써 경계지역 투표 행태의 경험적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 II. 기존연구 검토

한국에서 지역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발전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정치경

2) 본 연구에서 “지역 우세 정당”은 선거과정 중 특정지역에서 타 정당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는 정당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 우세 정당의 지지를 이탈하는 현상은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으로 표현한다.

제론적 분석, 정치동원론적 분석,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정치경제론적 관점은 과거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불균등한 경제발전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차등 인사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소외 당한 지역에서부터 지역주의가 형성되었다는 지역 간 정치·경제적 불평등 구조에 주목하는 분석이다(김만홍 1995; 최장집 1991). 두 번째 정치동원론적 분석은 민주화 이후 김영삼·김대중과 같은 정부와 대립하는 정치엘리트가 능동적으로 유권자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영·호남의 유권자를 동원하였다는 분석이다(문용직 1992; 손호철 1996). 마지막은 합리적 선택이론으로써 조기숙(2000)은 한 지역에서 유일한 지역정당으로 등장하거나 그에 근접한 정당을 패권정당으로 정의하고, 패권정당이 있는 패권지역에서는 높은 당선 가능성을 이유로 당내 공천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질이 뛰어난 후보를 공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전근대적인 지역주의 투표행위로 보기 어렵고, 패권정당 지역민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지역주의를 설명하였다.

한편, 한국 정치사에서 정치·경제적 불평등, 정치엘리트에 의한 동원,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 등과 같이 다양한 원인으로 등장하여 지속해 온 지역주의가 2002년 대선 이후 완화된 현상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은퇴, 영남 출신 노무현 후보가 호남 정당 대선후보로 선출되고 당선된 사실(이재목 2018)과 그 사실 전·후로 기존의 지역주의를 대신하여 세대, 이념, 성별과 같은 새로운 균열 이슈의 부상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강원택 2003; 김욱 2004; 최준영·조진만 2005). 그리고 교통·통신·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상호 접근성 증가, 다변화된 가정·이웃관계 형성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한 정치사회화 과정이 유권자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이재목 2018; 이재목·김기동 2017; 홍재우 2012).

본 논문은 정치사회화 과정의 한 매개체로써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른 교통의 발달, 이에 따른 새로운 이웃관계 형성이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주의의 완화 현상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정치사회화란 사회의 구성원이 그가 소속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정치적 가치관이나 태도를 습득하고 동화해 가는 과정 또는 세대 간에 정치문화를 계승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즉, 개인 수준으로서 정치적 가치나 태도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과 정치체계 수준으로서 다음 세대로 정치문화를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엄기홍·김재현 2010; 이재목 2018; 전용주 외 2007; Dawson & Prewitt 1969; Langton 1969). 정치사회화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일생동안 계속되고,

가족, 이웃, 친구, 학교, 직장, 정당, 매스미디어 등 다양한 집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한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며, 가족, 이웃, 친구와 같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1차 집단은 더욱 중요하게 취급된다. 1차 집단은 지역, 인종, 종교와 같은 더 큰 범주집단에 속하며, 같은 범주집단 내 공유된 정치적 가치나 선호는 1차 집단을 매개로 이전된다(엄기홍·김재현 2010; 전용주 외 2007). 그러므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구성원 혹은 집단 간 접근의 용이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공간상 인접성은 매우 유용한 변수가 될 것이다.

Tobler(1970)의 공간의 법칙에 의하면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들과 관련되어 있으나, 가까운 것은 멀리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 즉, 공간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영향은 커진다. 따라서 모든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이 근접한 지역에 의한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인 접근이다(기정훈 외 2010). 이웃효과에 관한 연구로써 Johnston et al.(2004)은 1991-2001년 영국 유권자의 정당 지지 패턴에서 강력한 이웃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특히,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지지 정당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일수록 이웃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김재한(2007)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2004년 17대 총선을 대상으로 충북·전북·경북의 접경지역인 영동군, 무주군, 김천시의 지역적 이웃효과<sup>3)</sup>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접경지역에서 토착 지역당이 아닌 기타 지역당의 득표율을 각 시·군의 기타 지역당의 평균 득표율과 비교하여 더 많은 득표율을 나타낸 곳이 어디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적 이웃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자연발생하는 문화적 친화성이 지역주의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연구대상 지역 중 무주군 부남면, 김천시 봉산면, 대항면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지역적 이웃효과를 발견하였다. 연구에서 일부 지역 외 이웃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결과는 충북 영동군의 충북지역 토착 지역당(자민련), 전북 무주군의 전북지역 토착 지역당(평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경북 김천시의 경북지역 토착 지역당(민정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의 선거별 득표율이 각각 4.2~23.9%, 17.9~65.2%,

3) 김재한(2007, 384)은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인접한 시·군의 지역 간에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사회경제적으로 교류가 많아 이웃한 시·군 지역의 정당 정체성에 동조하는 경향이 자기 시·군의 타지역당 평균득표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 (지역적) 이웃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43.8~73.7%로서, 토착 지역당에 대한 지지 강도가 상이한 지역에서 상호 영향력을 확인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충북·전북·경북의 접경지역에서 이웃효과가 제한적으로 발견되었다고 하나, 행정 경계지역에서 이웃하고 있는 양 행정구역 간 특성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접이지대가 형성될 수 있음은 합리적인 기대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공간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공간자기상관이란 “인문사회적 또는 자연적 현상들이 지리적 공간상에서 갖는 상호의존성 및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공간자기상관 현상은 시·군·구 등과 같은 행정구역이 주민들의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러한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한 각종 조사가 실제 지역활동 공간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즉, 공간자기상관은 인접한 위치에서 공간 단위와 공간 현상이 서로 불일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김광구 2003; Anselin & Bera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의 완화 현상과 인접 지역 간 공간자기상관 현상을 전제로 2002~2022년 영·호남 경계지역에서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 영·호남 경계지역에서 행정구역상 소속된 지역의 전통적 지지 정당에게 투표하지 않고 이탈하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상 구분되어 있지만, 생활권을 공유하거나 교류가 활발한 소단위 읍·면 지역에서 이웃하고 있는 지역의 정치적 성향에 동조하는 경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는 1988~2004년 충북·전북·경북의 접경지역에서 발견하지 못한 정치적 이웃관계에 대하여 20여년의 시간이 경과됨으로써 수반된 지역 간 이동성 증대 및 이에 따른 교류 활성화, 연구 대상 지역의 지역정당 지위를 고려한 것이다.

###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행정 경계지역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투표구별 개표 자료를 활용한 집합자료 분석을 시행하였다.<sup>4)</sup> 사용한 분석방법은 연구대상 지역에서의 지역 우세 정당의 지지 강도 비

4) 선거결과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에 있어서 선거마다 시행되는 여론조사는 설문내용이나 대상에 있어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하나, 집합자료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신뢰성이 높다(정재도·이재목 2018).

교이다. 연구대상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뚜렷한 영·호남 경계지역을 선정하였고, 일상생활 공유 및 인접지역 간 상호 교류의 실제적인 가능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결과 공개 단위를 고려하여 경계지역 읍·면 지역을 연구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 선거는 후보자의 사회적 배경에 의한 유권자 선택을 배제하고 통상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 거주자가 출마하는 지방선거를 제외한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활용하되, 국회의원 선거는 해당 지역의 이념 및 정당 호감도가 비교적 잘 반영되는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을 적용하였다. 분석 대상 선거의 시기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002년을 기점으로 동시대 실시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선거 총량과 선거 투표구별 개표 자료를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을 영남(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호남(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영남지역의 우세 정당과 호남지역의 우세 정당으로 분류하였다. 세부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을 영남지역 우세 정당으로, 새천년민주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을 호남지역 우세 정당으로 분류하였다.<sup>5)</sup>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영남지역 우세 정당, 호남지역 우세 정당 분류는 4장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영·호남 지역 우세 정당의 지지 강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지 강도를 지수화하고 상호 비교함으로써 지역 우세 정당의 이탈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1]** 호남을 경계로 한 영남지역 읍·면에서는 영남 우세 정당 득표율을 영남 우세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득표율로 나눈 지수( $\alpha$ )와 분석 대상 읍·면 지역의 영남 우세 정당 득표율을 영남 우세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득표율로 나눈 지수( $\beta$ ) 간 상호 비교하여 분석 대상 읍·면 지역에서의 영남 우세 정당을 더 지지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이탈하는 강도를 확인하였다.

5) 본 연구의 목적은 영·호남 경계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지역 우세 정당에 대한 지지를 이탈하거나 다른 진영 정당을 지지하는 정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19대 대선에서 전국 21.41%(호남 28.06%)의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 우세 정당으로 분류하였으나, 전국 6.76%(영남 8.49%)를 기록한 바른정당은 영남 지역 우세 정당에서 제외하였다.

(1) 영남의 지역 우세 정당 지지 지수( $\alpha$ ) =  $a / b$

(2) 분석 대상 읍·면의 지역 우세 정당 지지 지수( $\beta$ ) =  $c / d$

$a$  = 영남 지역(부산, 울산, 대구, 경상)의 영남 우세 정당 득표율

$b$  = 1 - 영남 지역(부산, 울산, 대구, 경상)의 영남 우세 정당 득표율

$c$  = 분석 대상 읍·면의 영남 우세 정당 득표율

$d$  = 1 - 분석 대상 읍·면의 영남 우세 정당 득표율

**[분석 2]** 영남을 경계로 한 호남지역 읍·면은 [분석 1]과 동일한 방식으로써 호남 우세 정당 득표율을 호남 우세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득표율로 나눈 지수( $\gamma$ )와 분석 대상 읍·면 지역의 호남 우세 정당 득표율을 호남 우세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득표율로 나눈 지수( $\delta$ )를 비교 분석하였다.

(1) 호남의 지역 우세 정당 지지 지수( $\gamma$ ) =  $a' / b'$

(2) 분석 대상 읍·면의 지역 우세 정당 지지 지수( $\delta$ ) =  $c' / d'$

$a'$  = 호남 지역(광주, 전라)의 호남 우세 정당 득표율

$b'$  = 1 - 호남 지역(광주, 전라)의 호남 우세 정당 득표율

$c'$  = 분석 대상 읍·면의 호남 우세 정당 득표율

$d'$  = 1 - 분석 대상 읍·면의 호남 우세 정당 득표율

지역주의 투표 행태에 대한 분석은 정당별 득표율이나 의석수를 측정하는 방법부터, 각 정당의 지역 득표율에서 전국 득표율을 뺀 정당 지지율을 분석하는 방법, 타 지역당 대비 분석 대상 지역당의 지지 비율을 분석하는 방법, 알포드 지수(Alford Index), 정당 의존성 지수(Party Dependency Index)를 활용하는 방법 등 각각의 연구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다(김재한 2007; 김진하 2010; 정재도·이재목 2018). 다만, 알포드 지수는 3개 이상의 정당과 지역에 대한 분석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우며(김진하 2010), 정당 의존성 지수<sup>6)</sup>는 특정 지역에서 지역정당의 의존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지역 우세 정당의 이탈 현상을 관찰하는 데에는 유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분석 방법을 참조하여 우세 정당의 득표율을 우세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득표율로 나눠 산출한 지수를 적용하였다. 이는 영·호남 경계지역에서 지역 우세 정당에 대한 지지를 이탈하여 다른 진영 정당을 지지하는 정도를 검증함과 동시에, 분

6) 정당의존성 지수(PDI)는 (지역 득표수/전체 득표수)/(지역 유권자수/전체 유권자수)로 산출된다(김진하 2010).



당과 합당이 반복되는 한국 정당사를 고려하여 지역 우세 정당에 포함되지 않는 제 3정당이 분석에서 배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더불어, 분석 대상 읍·면 지역에서 지역 우세 정당을 더 지지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엄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1], [분석 2]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되, 비교 기준으로써 광역자치단체(광역시, 도), 기초자치단체(시, 군)의 지수를 활용하였다.

#### IV. 집합자료 분석 결과

3장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16~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경계지역 읍·면의 우세 정당 지지 정도를 <표 1> ~ <표 4>로 지수화하였다. <표 1>, <표 2>는 영·호남의 우세 정당 지지 지수와 분석 대상 읍·면의 우세 정당 지지 지수를, <표 3>, <표 4>는 분석 대상 읍·면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우세 정당 지지 지수와 분석 대상 읍·면의 우세 정당 지지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 1.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를 활용한 경계지역 읍·면의 지역 우세 정당 지지 지수

###### 1) 영·호남의 우세 정당 지지 지수 - 읍·면의 우세 정당 지지 지수 간 비교

<표 1>은 영남의 우세 정당 지지 지수와 호남을 경계로 한 영남 4개 시·군 13개 읍·면의 영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16~20대 각각의 대통령 선거에서 산출한 영남 지역 우세 정당 지지 지수를 평균화한 영남 평균지수는 1.6970으로, 이는 영남에서 우세 정당의 득표율이 영남 우세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득표율보다 1.697배 더 높음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분석 대상 13개 읍·면 중 6개 면(부항면, 대덕면, 고제면, 북상면, 서상면, 백전면)은 영남 평균지수와 비교하여 우세 정당 지지 지수가 높고, 7개 읍·면(합양읍, 마천면, 화개면, 악양면, 하동읍, 고전면, 금성면)은 영남 평균지수와 비교하여 우세 정당 지지 지수가 낮았다. 즉, 지수가 낮은 7개 읍·면은 영남과 비교하여 지역 우세 정당의 지지를 이탈하는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존재하였다. 반면, 완화 현상이 발견되지 않은 6개 면 중 부항면, 대덕면(지수 차 -1.7553, -1.5431)은 다른 읍·면과 비교하여 지역주의 투표 현상이 강하게 확인되었다.7)

〈표 1〉 (호남 경계) 영남 읍·면 지역 우세 정당 지지 지수 / 영남지역 평균지수와 비교

구 분	20대 (2022년)	19대 (2017년)	18대 (2012년)	17대 (2007년)	16대 (2002년)	평균지수	
영남지역	1.7913	0.6339	2.2173	1.6567	2.1856	1.6970	
경 북 김천시	부항면	4.5423	1.6535	5.8824	1.8625	3.3206	3.4523
	대덕면	4.1328	1.7154	5.6061	2.2371	2.5091	3.2401
경 남 거창군	고계면	1.9661	1.3733	2.8221	1.0309	2.2628	1.8910
	북상면	2.2968	1.1744	3.1379	1.4512	2.3107	2.0742
경 남 함양군	서상면	1.6925	1.1857	3.0362	1.3202	2.3181	1.9105
	백전면	1.8455	1.1009	2.6886	1.1289	2.181	1.7890
	함양읍	1.6519	0.8946	2.2491	1.2766	2.2667	1.6678*
	마천면	1.4484	0.9772	2.1341	1.1674	2.1473	1.5749*
경 남 하동군	화개면	1.1072	0.6195	1.6010	0.9423	1.6808	1.1902*
	약양면	1.3482	0.8806	1.9202	1.0649	2.0201	1.4468*
	하동읍	1.3357	0.7399	1.7099	1.1222	1.7802	1.3376*
	고전면	1.5585	0.8913	1.9964	1.1411	1.9901	1.5155*
	금성면	1.5725	0.8254	2.0297	0.9687	1.8452	1.4483*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주 : \*평균지수 영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 $\alpha$ ) > 읍·면 우세 정당 지지 지수( $\beta$ )

7) 역대 선거 결과에 의하면, 영남지역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간 지역주의 투표 행태에서 차별성이 관찰되었다. 대통령 선거 결과, 대구·경북에서 영남 우세 정당의 득표율(20대, 19대, 18대, 17대, 16대 대통령 선거 순)은 73.90%, 47.06%, 80.50%, 71.08%, 74.49%로, 영남 전체 득표율 64.17%, 38.80%, 68.92%, 62.36%, 68.61%와 비교하여 매 선거마다 10% 내외 상회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남 우세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7대 국회의원 선거 순)은 대구·경북 55.82%, 55.74%, 67.85%, 78.02%, 60.10%로 부산·울산·경남지역 득표율 43.51%, 41.70%, 52.09%, 64.17%, 46.88%, 영남지역 전체 득표율 48.30%, 47.14%, 58.20%, 69.93%, 52.07%와 비교하여 매 선거마다 크게 상회하고 있다. 즉, 대구·경북에서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의 강도 및 연속성이 부산·울산·경남과 비교하여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류재성 2010; 정재도·이재목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남지역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으로 구분하되, 영·호남 지역을 분석함에 있어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남지역도 전북, 광주·전남으로 세분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를 종합분석 시 포함하였다. 대통령 선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의 지역 우세 정당 지지 지수는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20대 (2022년)	19대 (2017년)	18대 (2012년)	17대 (2007년)	16대 (2002년)	평균지수
대구·경북 지역	2.8307	0.8889	4.1270	2.4575	2.9199	2.6448
부산·울산·경남 지역	1.3638	0.5040	1.5748	1.2836	1.8302	1.3113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2>는 호남의 우세 정당 지지 지수와 영남을 경계로 한 호남 5개 시·군 13개 면의 호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를 산출한 표이다. 호남 평균지수는 7.7205로 호남에서 호남 우세 정당의 득표율이 호남 우세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득표율보다 7.7205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영남 평균 지수 1.6970을 고려할 때,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은 영남과 비교하여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분석 대상 5개 시·군 13개 면 중 13개 면 모든 지역에서 호남 평균지수와 비교하여 우세 정당 지지 지수가 더 낮았다. 즉, 영남을 경계로 한 호남의 13개 면에서 호남 대비 지역 우세 정당의 지지를 이탈하는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을 발견했다. 특히, 무주군 무풍면, 설천면(지수 차 +4.153, +3.5491)은 다른 11개 면과 비교하여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강했다.<sup>8)</sup>

<표 2> (영남 경계) 호남 읍·면 지역 우세 정당 지지 지수 / 호남지역 평균지수와 비교

구 분	20대 (2022년)	19대 (2017년)	18대 (2012년)	17대 (2007년)	16대 (2002년)	평균지수	
호남지역	5.5106	9.0582	8.0587	4.0063	11.9687	7.7205	
전 북 무주군	무풍면	2.5507	4.6759	2.4965	2.9855	5.1289	3.5675*
	설천면	3.2816	5.3230	3.1180	3.5093	5.6250	4.1714*
	안성면	5.0541	7.2809	5.0491	4.1498	8.5706	6.0209*
전 북 장수군	계북면	5.6209	6.8480	4.2174	4.3854	5.6875	5.3518*
	장계면	5.5094	7.4520	4.8323	4.9821	7.3671	6.0286*
	번암면	5.5289	8.1524	5.4783	5.7520	5.9517	6.1727*
전 북 남원시	아영면	5.7634	7.8767	6.4571	5.6337	11.1613	7.3784*
	인월면	5.2993	7.3445	5.8473	5.5129	10.1404	6.8289*
	산내면	5.1233	5.1571	6.2472	4.2127	9.3607	6.0202*
전 남 구례군	토지면	5.9254	9.7651	6.1803	2.6947	9.6550	6.8441*
	간전면	6.1765	9.7789	5.1657	2.9605	13.0769	7.4317*
전 남 광양시	다압면	4.4563	6.3061	5.2079	2.7313	7.4186	5.2240*
	진월면	6.2335	9.0107	5.6919	3.8479	11.3180	7.2204*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주 : \*평균지수 호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y) > 읍·면 우세 정당 지지 지수(δ)

8) 호남지역을 전북, 광주·전남으로 세분한 평균지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지수는 종합분석 시 적용하였다.

구 분	20대 (2022년)	19대 (2017년)	18대 (2012년)	17대 (2007년)	16대 (2002년)	평균지수
전북 지역	4.8757	7.7800	6.2739	4.4359	9.7887	6.6308
광주·전남 지역	5.9176	9.9321	9.4781	3.7846	13.6082	8.5441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시·군의 우세 정당 지지 지수 - 읍·면의 우세 정당 지지 지수 간 비교

광역자치단체별 지역 우세 정당에 대한 지지 강도 차이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주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계지역 읍·면이 소속된 기초자치단체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경계지역 읍·면의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즉, 호남을 경계로 한 영남에서는 해당 시·군의 영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와 경계지역 읍·면의 영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예 : 김천시 부항면, 대덕면은 김천시 지수와 비교), 영남을 경계로 한 호남에서는 해당 시·군의 호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와 경계지역 읍·면의 호남 우세 정당의 지지 지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시·군, 경계지역 읍·면의 우세 정당 지지 정도를 지수화 한 결과는 <표 3> ~ <표 4>와 같다.

<표 3>은 대통령 선거 정당별 득표율 기준, 해당 시·군의 영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와 경계지역 읍·면의 영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경계지역 13개 읍·면 중 7개 면은 해당 시·군 평균지수와 비교하여 우세 정당 지지 지수가 높고, 6개 읍·면은 해당 시·군의 영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와 비교하여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수가 낮은 고계면, 백전면, 함양읍, 마천면, 화개면, 하동읍은 해당 시·군 대비 영남 우세 정당의 지지를 이탈하는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존재하였다.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확인되지 않은 7개 면 중 부항면, 대덕면은 해당 시·군과 평균지수 차이가 -0.5854, -0.3732로, 북상면, 서상면, 악양면, 고전면, 금성면의 지수 차이 -0.1505, -0.1202, -0.0123, -0.081, -0.0138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3> (호남 경계) 영남 읍·면 지역 우세 정당 지지 지수 / 해당 시·군 평균지수와 비교

구 분	20대 (2022년)	19대 (2017년)	18대 (2012년)	17대 (2007년)	16대 (2002년)	평균지수	
경북 김천시	2.7250	0.9248	5.0292	2.1794	3.4763	2.8669	
경북 김천시	부항면	4.5423	1.6535	5.8824	1.8625	3.3206	3.4523
	대덕면	4.1328	1.7154	5.6061	2.2371	2.5091	3.2401
경남 거창군	1.9907	0.9525	2.6432	1.4170	2.6153	1.9237	
경남 거창군	고계면	1.9661	1.3733	2.8221	1.0309	2.2628	1.8910*
	북상면	2.2968	1.1744	3.1379	1.4512	2.3107	2.0742

구 분	20대 (2022년)	19대 (2017년)	18대 (2012년)	17대 (2007년)	16대 (2002년)	평균지수	
경남 함양군	1.7556	0.9739	2.5357	1.3251	2.3610	1.7903	
경 남 함양군	서상면	1.6925	1.1857	3.0362	1.3202	2.3181	1.9105
	백전면	1.8455	1.1009	2.6886	1.1289	2.181	1.7890*
	함양읍	1.6519	0.8946	2.2491	1.2766	2.2667	1.6678*
	마천면	1.4484	0.9772	2.1341	1.1674	2.1473	1.5749*
경남 하동군	1.4973	0.7781	1.8807	1.0878	1.9286	1.4345	
경 남 하동군	화개면	1.1072	0.6195	1.6010	0.9423	1.6808	1.1902*
	약양면	1.3482	0.8806	1.9202	1.0649	2.0201	1.4468
	하동읍	1.3357	0.7399	1.7099	1.1222	1.7802	1.3376*
	고전면	1.5585	0.8913	1.9964	1.1411	1.9901	1.5155
	급성면	1.5725	0.8254	2.0297	0.9687	1.8452	1.4483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주 : \*평균지수 시·군 우세 정당 지지 지수 > 읍·면 우세 정당 지지 지수

<표 4>는 대통령 선거 정당별 득표율 기준, 해당 시·군의 호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와 경계지역 읍·면의 호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경계지역 13개 면 중 9개 면에서 해당 시·군의 호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와 비교하여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즉, 무풍면, 설천면, 계북면, 아영면, 인월면, 산내면, 토지면, 간전면, 다압면은 해당 시·군 대비 호남 우세 정당의 지지를 이탈하는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는 <표 2>의 모든 분석 대상 지역에서 호남 평균지수와 비교하여 우세 정당 지지 지수가 더 낮은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성면, 장계면, 변암면, 진월면은 호남 대비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해당 시·군 대비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확인되지 않은 4개 면 중 안성면, 진월면은 해당 시·군과 평균지수 차이가 -1.6071, -1.9941로, 장계면, 변암면의 지수 차이 -0.053, -0.1971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영남 경계) 호남 읍·면 지역 우세 정당 지지 지수 / 해당 시·군 평균지수와 비교

구 분	20대 (2022년)	19대 (2017년)	18대 (2012년)	17대 (2007년)	16대 (2002년)	평균지수	
전북 무주군	3.3431	5.6633	3.3616	3.5262	6.1748	4.4138	
전 북 무주군	무풍면	2.5507	4.6759	2.4965	2.9855	5.1289	3.5675*
	설천면	3.2816	5.3230	3.1180	3.5093	5.6250	4.1714*
	안성면	5.0541	7.2809	5.0491	4.1498	8.5706	6.0209

구 분		20대 (2022년)	19대 (2017년)	18대 (2012년)	17대 (2007년)	16대 (2002년)	평균지수
전북 장수군		5.3954	7.3726	5.2210	4.7385	7.1507	5.9756
전 북 장수군	계북면	5.6209	6.8480	4.2174	4.3854	5.6875	5.3518*
	장계면	5.5094	7.4520	4.8323	4.9821	7.3671	6.0286
	번암면	5.5289	8.1524	5.4783	5.7520	5.9517	6.1727
전북 남원시		5.5268	8.6776	6.6337	6.1617	11.3269	7.6653
전 북 남원시	아영면	5.7634	7.8767	6.4571	5.6337	11.1613	7.3784*
	인월면	5.2993	7.3445	5.8473	5.5129	10.1404	6.8289*
	산내면	5.1233	5.1571	6.2472	4.2127	9.3607	6.0202*
전남 구례군		5.7183	9.7491	6.4949	3.5965	12.1944	7.5506
전 남 구례군	토지면	5.9254	9.7651	6.1803	2.6947	9.6550	6.8441*
	간전면	6.1765	9.7789	5.1657	2.9605	13.0769	7.4317*
전남 광양시		4.3645	6.7303	5.6138	2.2403	7.1826	5.2263
전 남 광양시	다압면	4.4563	6.3061	5.2079	2.7313	7.4186	5.2240*
	진월면	6.2335	9.0107	5.6919	3.8479	11.3180	7.2204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주 : \*평균지수 시·군 우세 정당 지지 지수 > 읍·면 우세 정당 지지 지수

## 2.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를 활용한 경계지역 읍·면의 지역 우세 정당 지지 지수

대통령 선거 득표율과 더불어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정당별 득표율까지 확대하여 영·호남 경계지역 읍·면의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을 활용하였다. 이는 정당에 대한 투표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정당 선호가 반영되는 선택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정재도·이재묵 2018; Johnston & Pattie 2002; Karp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은 정당 명부제 투표가 시작된 1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을 영남(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호남(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영남지역의 우세 정당과 호남지역의 우세 정당으로 분류하였다. 세부적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영남지역 우세 정당으로,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을 호남지역 우세 정당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주요선거 전후 분당과 합당이 반복되는 우리나라 정당사를 고려하여 영·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둔 일부의 제 3정당들을 예외적으로 영남 우세 정당과 호남 우세 정당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17대 국회의원 선거 시 새천년민주당을 호남 우세 정당으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친박연대를 영남 우세 정당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당을 호남 우세 정당으로 편입하여 분석하였다.<sup>9)</sup>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제한적으로 연동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위성정당 창당 상황을 고려하여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영남 우세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호남 우세 정당으로 분류하였다.

1) 영·호남의 우세 정당 지지 지수 - 읍·면의 우세 정당 지지 지수 간 비교

<표 5>는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율을 바탕으로 영남의 우세 정당 지지 지수와 호남을 경계로 한 영남 4개 시·군 13개 읍·면의 영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17~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영남 평균지수는 1.3259로, 영남에서 영남 우세 정당의 득표율이 영남 우세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득표율보다 1.3259배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동일시기에 실시된 16~20대 대통령 선거 평균지수 1.6970과 유사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경계지역 4개 시·군 13개 읍·면 지역 중 고제면, 백전면, 마천면, 화개면에서 영남지역 대비 영남 우세 정당을 덜 지지하거나, 영남 우세 정당 외의 정당을 더 지지하는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존재하였다.

<표 5> (호남 경계) 영남 읍·면 지역 우세 정당 지지 지수 / 영남지역 평균지수와 비교

구 분		21대 (2020년)	20대 (2016년)	19대 (2012년)	18대 (2008년)	17대 (2004년)	평균지수
영남지역		0.9341	0.8916	1.3924	2.3252	1.0866	1.3259
경 북 김천시	부항면	1.6263	2.0633	3.0226	2.8991	1.5843	2.2391
	대덕면	1.6855	1.3692	2.6981	2.4796	1.3984	1.9262
경 남 거창군	고제면	1.0921	1.5068	1.1880	1.5962	0.8815	1.2529*
	북상면	0.9170	1.5042	1.9436	1.9580	1.0870	1.4820

9) 17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은 호남 25.84%(전국 7.1%),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는 영남 23.21%(전국 13.2%),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호남 47.49%(전국 26.7%)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구 분		21대 (2020년)	20대 (2016년)	19대 (2012년)	18대 (2008년)	17대 (2004년)	평균지수
경 남 함양군	서상면	0.8333	1.7507	1.5529	2.3003	1.1434	1.5161
	백전면	0.8924	1.2744	1.3324	1.7464	1.1080	1.2707*
	함양읍	0.8812	1.1274	1.4086	2.2300	1.0906	1.3476
	마천면	0.7428	1.4212	1.3333	1.8516	1.0622	1.2822*
경 남 하동군	화개면	0.7281	1.1608	1.3736	2.0543	0.8515	1.2337*
	악양면	0.8671	1.5620	1.6905	2.2544	0.8909	1.4530
	하동읍	0.8019	1.1102	1.6054	2.3391	0.8802	1.3474
	고전면	0.9548	1.4864	1.8757	2.1390	0.9107	1.4733
	금성면	0.7954	1.5333	1.8386	2.1268	0.7733	1.4135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주 : \*평균지수 영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α) > 읍·면 우세 정당 지지 지수(β)

<표 6>은 국회의원 선거의 호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와 영남을 경계로 한 호남 5개 시·군 13개 면의 호남 우세 정당의 지지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17~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남 평균지수는 2.6843으로 이는 호남에서 호남 우세 정당의 득표율이 호남 우세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득표율보다 2.6843배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일한 시기에 실시된 16~20대 대통령 선거의 호남 평균지수 7.7205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 평균지수도 영남 평균지수 1.3259와 비교하여 호남이 영남보다 상대적으로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강함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분석 대상 5개 시·군 13개 면 지역 중 장계면을 제외한 12개 면에서 호남 우세 정당을 덜 지지하거나, 호남 우세 정당 외의 정당을 더 지지하는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영남 경계) 호남 읍·면 지역 우세 정당 지지 지수 / 호남지역 평균지수와 비교

구 분		21대 (2020년)	20대 (2016년)	19대 (2012년)	18대 (2008년)	17대 (2004년)	평균지수
호남지역		1.4380	3.5404	2.1236	2.0108	4.3086	2.6843
전 북 무주군	무풍면	0.9074	2.6472	1.6809	1.6894	3.4898	2.0829*
	설천면	1.0859	3.1755	2.1963	2.0900	3.6842	2.4464*
	안성면	1.3747	3.2677	2.2165	2.2292	3.9183	2.6013*



구 분		21대 (2020년)	20대 (2016년)	19대 (2012년)	18대 (2008년)	17대 (2004년)	평균지수
전 북 장수군	계북면	1.1077	2.8921	2.2466	1.4232	3.1210	2.1581*
	장계면	1.1867	3.6234	2.3338	1.7910	4.8506	2.7571
	번암면	1.6377	3.1519	2.5757	1.7092	3.5774	2.5304*
전 북 남원시	아영면	1.4761	2.8283	1.4362	1.5930	3.7123	2.2092*
	인월면	1.3689	2.4022	1.8253	1.8866	4.5723	2.4111*
	산내면	1.0802	1.3592	1.0884	1.6423	3.4160	1.7172*
전 남 구례군	토지면	1.4737	3.2139	2.0322	2.1890	3.4734	2.4764*
	간전면	1.6777	2.3232	1.9659	1.7129	3.4934	2.2346*
전 남 광양시	다압면	1.5781	2.8607	1.7839	1.7893	3.6077	2.3239*
	진월면	1.6993	3.0444	1.6713	2.1115	4.5481	2.6149*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주 : \*평균지수 호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y) > 읍·면 우세 정당 지지 지수(δ)

## 2) 시·군의 우세 정당 지지 지수 - 읍·면의 우세 정당 지지 지수 간 비교

<표 7>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율 기준, 해당 시·군의 영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와 경계지역 읍·면의 영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경계지역 13개 읍·면 중 7개 읍·면에서 해당 시·군의 영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와 비교하여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덕면, 고제면, 백전면, 함양읍, 마천면, 화개면, 하동읍은 해당 시·군과 비교하여 영남 우세 정당을 덜 지지하거나, 영남 우세 정당 외의 정당을 더 지지하는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발견되었다.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확인되지 않은 6개 면의 해당 시·군과의 지수 차이는 부항면 -0.0184, 북상면 -0.0313, 서상면 -0.0983, 악양면 -0.0835, 고전면 -0.1038, 금성면 -0.044 수준이었다.

<표 7> (호남 경계) 영남 읍·면 지역 우세 정당 지지 지수 / 해당 시·군 평균지수와 비교

구 분		21대 (2020년)	20대 (2016년)	19대 (2012년)	18대 (2008년)	17대 (2004년)	평균지수
경북 김천시		1.4187	1.3527	2.7477	3.7047	1.8795	2.2207
경 북 김천시	부항면	1.6263	2.0633	3.0226	2.8991	1.5843	2.2391
	대덕면	1.6855	1.3692	2.6981	2.4796	1.3984	1.9262*

구 분	21대 (2020년)	20대 (2016년)	19대 (2012년)	18대 (2008년)	17대 (2004년)	평균지수	
경남 거창군	1.0000	1.2016	1.3956	2.3764	1.2797	1.4507	
경 남 거창군	고제면	1.0921	1.5068	1.1880	1.5962	0.8815	1.2529*
	북상면	0.9170	1.5042	1.9436	1.9580	1.0870	1.4820
경남 함양군	0.9101	1.3239	1.4854	2.1866	1.1832	1.4178	
경 남 함양군	서상면	0.8333	1.7507	1.5529	2.3003	1.1434	1.5161
	백전면	0.8924	1.2744	1.3324	1.7464	1.1080	1.2707*
	함양읍	0.8812	1.1274	1.4086	2.2300	1.0906	1.3476*
	마천면	0.7428	1.4212	1.3333	1.8516	1.0622	1.2822*
경남 하동군	0.8798	1.2833	1.6414	2.1573	0.8855	1.3695	
경 남 하동군	화개면	0.7281	1.1608	1.3736	2.0543	0.8515	1.2337*
	약양면	0.8671	1.5620	1.6905	2.2544	0.8909	1.4530
	하동읍	0.8019	1.1102	1.6054	2.3391	0.8802	1.3474*
	고전면	0.9548	1.4864	1.8757	2.1390	0.9107	1.4733
	금성면	0.7954	1.5333	1.8386	2.1268	0.7733	1.4135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주 : \*평균지수 시·군 우세 정당 지지 지수 > 읍·면 우세 정당 지지 지수

<표 8>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율 기준, 해당 시·군의 호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와 경계지역 면의 호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경계지역 13개 면 중 7개 면에서 해당 시·군의 호남 우세 정당 지지 지수와 비교하여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풍면, 계북면, 아영면, 인월면, 산내면, 토지면, 간전면에서 해당 시·군과 비교하여 호남 우세 정당을 덜 지지하거나, 호남 우세 정당 외의 정당을 더 지지하는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존재하였다.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확인되지 않은 6개 면의 해당 시·군과의 지수 차이는 설천면 -0.0888, 안성면 -0.2437, 장계면 -0.2824, 변암면 -0.0557, 다압면 -0.1501, 진월면 -0.4411 수준이었다.

〈표 8〉 (영남 경계) 호남 읍·면 지역 우세 정당 지지 지수 / 해당 시·군 평균지수와 비교

구 분	21대 (2020년)	20대 (2016년)	19대 (2012년)	18대 (2008년)	17대 (2004년)	평균지수	
전북 무주군	1.0694	3.1043	2.0465	1.8603	3.7073	2.3576	
전 북 무주군	무풍면	0.9074	2.6472	1.6809	1.6894	3.4898	2.0829*
	설천면	1.0859	3.1755	2.1963	2.0900	3.6842	2.4464
	안성면	1.3747	3.2677	2.2165	2.2292	3.9183	2.6013
전북 장수군	1.2601	3.2163	2.3030	1.6653	3.9291	2.4747	
전 북 장수군	계북면	1.1077	2.8921	2.2466	1.4232	3.1210	2.1581*
	장계면	1.1867	3.6234	2.3338	1.7910	4.8506	2.7571
	번암면	1.6377	3.1519	2.5757	1.7092	3.5774	2.5304
전북 남원시	1.4165	2.7978	1.6692	2.0440	4.8767	2.5608	
전 북 남원시	아영면	1.4761	2.8283	1.4362	1.5930	3.7123	2.2092*
	인월면	1.3689	2.4022	1.8253	1.8866	4.5723	2.4111*
	산내면	1.0802	1.3592	1.0884	1.6423	3.4160	1.7172*
전남 구례군	1.5760	3.5738	1.8643	2.2414	4.4458	2.7403	
전 남 구례군	도지면	1.4737	3.2139	2.0322	2.1890	3.4734	2.4764*
	간전면	1.6777	2.3232	1.9659	1.7129	3.4934	2.2346*
전남 광양시	1.5073	3.4379	1.5727	1.3692	2.9816	2.1738	
전 남 광양시	다압면	1.5781	2.8607	1.7839	1.7893	3.6077	2.3239
	진월면	1.6993	3.0444	1.6713	2.1115	4.5481	2.6149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주 : \*평균지수 시·군 우세 정당 지지 지수 > 읍·면 우세 정당 지지 지수

### 3. 행정 경계지역 읍·면의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 분석

#### 1)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지수 차 평균 분석

행정 경계지역 읍·면에서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의 유무 여부와 각각의 강도를 판단하기 위해 지수 차(差)를 활용한 종합 분석을 시행하였다. 지수 차는 영·호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우세 정당 지지 지수와 분석 대상 읍·면의 우세 정당 지지 지수 간의 차이로써 양(+), 음(-)의 값은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의 유무 여부를, 지수의 크기는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의 강도를 제시한다. 지수 차 평균은 분석 대상이 되는 읍·면과 영·호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우세 정당 지지 지수를 각각 비교한

총 30회 값의 평균값으로써, 분석 대상 읍·면 지역에서의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 및 강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다.

<표 9>는 호남을 경계로 한 영남 읍·면 지역의 우세 정당 지지 지수 차이다. 행정구역상 호남을 경계로 한 영남지역 13개 읍·면 중 함양군 마천면, 하동군 화개면, 하동읍 3개 읍·면에서 영남 우세 정당을 덜 지지하거나, 우세 정당 외의 정당을 더 지지하는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확인되었다.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발견된 3개 읍·면에서의 완화 현상 강도는 화개면 +0.1526, 하동읍 +0.0221, 마천면 +0.0034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9> (호남 경계) 영남 읍·면 지역 우세 정당 지지 지수 차(差)

구 분	영남 기준		경북/부산·울산·경남 기준		해당 시·군 기준		지수 차 평균 (30회)	
	대선(5회)	총선(5회)	대선(5회)	총선(5회)	대선(5회)	총선(5회)		
경 북 김천시	부항면	-1.7553	-0.9132	-0.8075	-0.3011	-0.5854	-0.0184	-0.7302
	대덕면	-1.5431	-0.6003	-0.5953	0.0118	-0.3732	0.2945	-0.4676
경 남 거창군	고제면	-0.1940	0.0730	-0.5797	-0.2036	0.0327	0.1978	-0.1123
	북상면	-0.3772	-0.1561	-0.7629	-0.4327	-0.1505	-0.0313	-0.3185
경 남 함양군	서상면	-0.2135	-0.1902	-0.5992	-0.4668	-0.1202	-0.0983	-0.2814
	백전면	-0.0920	0.0552	-0.4777	-0.2214	0.0013	0.1471	-0.0979
	함양읍	0.0292	-0.0217	-0.3565	-0.2983	0.1225	0.0702	-0.0758
	마천면	0.1221	0.0437	-0.2636	-0.2329	0.2154	0.1356	+0.0034
경 남 하동군	화개면	0.5068	0.0922	0.1211	-0.1844	0.2443	0.1358	+0.1526
	악양면	0.2502	-0.1271	-0.1355	-0.4037	-0.0123	-0.0835	-0.0853
	하동읍	0.3594	-0.0215	-0.0263	-0.2981	0.0969	0.0221	+0.0221
	고전면	0.1815	-0.1474	-0.2042	-0.4240	-0.0810	-0.1038	-0.1298
	금성면	0.2487	-0.0876	-0.1370	-0.3642	-0.0138	-0.0440	-0.0663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10>은 영남을 경계로 한 호남 읍·면 지역의 우세 정당 지지 지수 차이다. 행정구역상 영남을 경계로 한 호남지역 5개 시·군 13개 면 중 광양시 진월면을 제외한 12개 면에서 호남 우세 정당을 덜 지지하거나, 호남 우세 정당 외의 정당을 더 지지하는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상위 3개 지역의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 강도는 무풍면 +1.5497, 다압면 +1.0909, 산내면 +1.0819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영남 경계) 호남 읍·면 지역 우세 정당 지지 지수 차(差)

구 분		호남 기준		전북/광주·전남 기준		해당 시·군 기준		지수 차 평균 (30회)
		대선(5회)	총선(5회)	대선(5회)	총선(5회)	대선(5회)	총선(5회)	
전 북 무주군	무풍면	4.1530	0.6014	3.0633	0.3592	0.8463	0.2747	+1.5497
	설천면	3.5491	0.2379	2.4594	-0.0043	0.2424	-0.0888	+1.0660
	안성면	1.6996	0.0830	0.6099	-0.1592	-1.6071	-0.2437	+0.0638
전 북 장수군	계북면	2.3687	0.5262	1.2790	0.2840	0.6238	0.3166	+0.8997
	장계면	1.6919	-0.0728	0.6022	-0.3150	-0.0530	-0.2824	+0.2618
	번암면	1.5478	0.1539	0.4581	-0.0883	-0.1971	-0.0557	+0.3031
전 북 남원시	아영면	0.3421	0.4751	-0.7476	0.2329	0.2869	0.3516	+0.1568
	인월면	0.8916	0.2732	-0.1981	0.0310	0.8364	0.1497	+0.3306
	산내면	1.7003	0.9671	0.6106	0.7249	1.6451	0.8436	+1.0819
전 남 구례군	토지면	0.8764	0.2079	1.7000	0.3639	0.7065	0.2639	+0.6864
	간전면	0.2888	0.4497	1.1124	0.6057	0.1189	0.5057	+0.5135
전 남 광양시	다압면	2.4965	0.3604	3.3201	0.5164	0.0023	-0.1501	+1.0909
	진월면	0.5001	0.0694	1.3237	0.2254	-1.9941	-0.4411	-0.0528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 읍·면 별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의 차이에 대한 설명

<표 9>, <표 10>에서 행정 경계지역 읍·면의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의 유무 여부와 강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해 보고자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의 강도가 강한 지역과 완화 현상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 간 상호 교류에 관한 각종 언론매체 보도자료 및 지리·지형상 특징을 확인하였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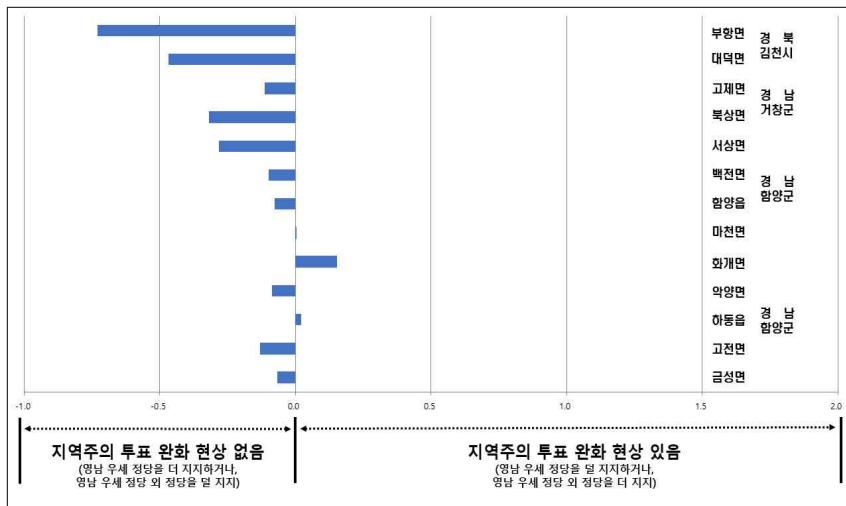
호남을 경계로 하는 영남지역 읍·면 중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확인된 읍·면은 3개이다. 그중에 하동군 화개면과 하동읍의 지수 차 평균은 +0.1526, +0.0221으로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강한 상위 2개 지역이다. 화개면과 하동읍에서 관찰되는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은 이 지역 고유의 특징과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개면과 하동읍은 화개장터를 대표적 장소로 한 영·호남

10) 영·호남 간 교류에 관한 국내연구는 다수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는 영남과 호남 단위의 교류 현황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읍·면 간 교류 현황은 인터넷 매체 검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화합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이 지역은 2000년대를 들어서며, 영·호남 화합의 교량 남도대교 건설(정승호 2003), 영·호남 화합 광장(허귀용 2013) 등을 조성하였으며, 매년 영·호남 화합 해맞이 행사(김성도 2023), 줄다리기(최두열 2015), 떡메치기(김상현 2017) 등 영남과 호남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행사가 매우 활발한 지역이다. 또한, 함양군 마천면(지수 차 평균 +0.0034, 영남 3위)은 이웃하고 있는 전북 남원시 산내면과 1996년 협약식 체결 후 홀수년도 마천면 주관, 짝수년도 산내면 주관 자매결연행사를 실시하는 등 상호 정보교류 및 친목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이방희 2018). 마천면과 이웃한 전북 남원시 산내면(지수 차 평균 +1.0819, 호남 3위)도 호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큰 양(+)의 지수 차 평균값을 가진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 교류가 지역주의 투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김천시 부항면(지수 차 평균 -0.7302, 영남 13위), 대덕면(지수 차 평균 -0.7302, 영남 12위)은 영남지역에서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없는 지역 중 상위 2개 지역이다. 경북 김천시 부항면, 대덕면은 전북 무주군 무풍면, 설천면과 접하고 있으나, 실제 생활권은 도시 규모가 더욱 크기에 시장 유인력이 좋은 김천 시내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김천시가 경북 최외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영동군, 무주군과는 극히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교류 성향을 가지는 것과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김재한 2007).

[그림 1] (호남 경계) 영남지역 읍·면의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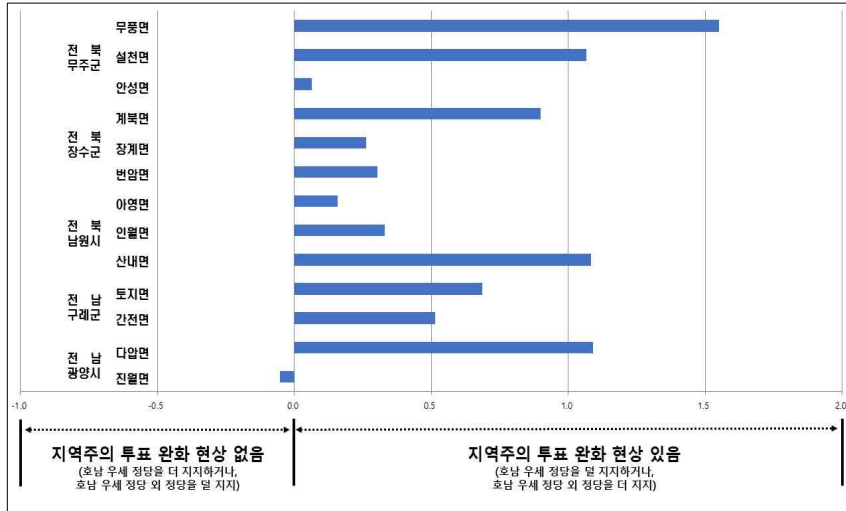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영남을 경계로 하는 호남지역 13개 면 중 12개 면에서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 중 무주군 무풍면(지수 차 평균 +1.5497, 호남 1위)과 설천면(지수 차 평균 +1.0660, 호남 4위)은 호남지역 중에서도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확인되었다. 이 지역은 2022년 3월 시행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수정당 후보에 대한 호남지역 내 높은 지지율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풍면, 설천면이 경북 김천시, 경남 거창군과 인접하여 경상도 사투리를 쓸 정도로 실제 생활권이 경상권에 편입되어 있음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천면은 부산, 대구 등지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이 다수를 이룸으로써 보수정당 지지율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김국진 2022). 또한, 무풍면과 김천시 부항면은 2012년부터 격년제로 상호 초청하는 방식으로 매년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인적·물적 교류를 가져왔다(윤성원 2018). 또한, 광양시 다압면(지수 차 평균 +1.0909, 호남 2위)은 인근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개면과 행정구역상 구분되어 있으나, 행정복지센터 기준 10km 내외의 거리에서 서로 가깝게 위치하며, 매일 10회 이상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등 실질적인 동일 생활권임을 확인하였다. 앞의 함양군 마천면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지리산의 안쪽에 위치한다고 하여 명칭이 유래한 남원시 산내면(지수 차 평균 +1.0819, 호남 3위)은 행정구역상 전남 남원시에 편입되어 있으나, 남원 시내로부터 동남쪽으로 35km로 원거리 이격되어 활발한 이동에 제한이 있는 반면, 경남 함양군 마천면과는 5.3km 가깝게 이격되어 있으며, 지방도 60호선이 연결되어 상호 간 이동 및 교류가 용이하다.

이와는 반대로 행정구역상 이웃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호 직접적인 교류가 제한되는 경계지역도 확인하였다. 호남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약한 무주군 안성면(지수 차 평균 0.0638, 호남 12위)은 경남 거창군 북상면(지수 차 평균 -0.3185, 영남 11위)과 이웃하고 있으나, 안성면과 북상면 사이에 덕유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로를 이어주는 도로가 없어 실질적으로 상호 교류가 불가한 지형적 특성이 있다. 광양시 진월면(지수 차 평균 -0.0528, 호남 13위)은 영남지역과의 경계선에 섬진강이 있어 경남 하동군 고전면(지수 차 평균 -0.1298, 영남 9위), 금성면(지수 차 평균 -0.0663, 영남 4위)과 상호 간 이동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지형상 장애물로 인해 상호 교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이웃효과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림 2] (영남 경계) 호남지역 읍·면의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V. 결 론

본 연구는 행정구역상 경계지역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전라도 지역,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경상도 지역”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하였다. 즉, 부지불식간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생활 공유, 이웃관계 형성 및 상호 교류가 지역주의 투표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16대 ~ 20대 대통령 선거 득표율, 제17대 ~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 대한 집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영·호남 경계지역 분석 대상 9개 시·군 26개 읍·면 지역 중 15개 읍·면 지역(영남 3개, 호남 12개)에서 지역 우세 정당에 대한 지지를 이탈하는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영남 속의 호남, 호남 속의 영남”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인접 지역의 우세 정당에 동조하는 경향이 충북·전북·경북의 접경지역인 영동군, 무주군, 김천시에서는 지엽적으로 확인되었던 것과는 달리, 호남 경계지역 전반과 영남 경계지역 일부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보인 것이다. 다만, 지역 우세



정당의 지지를 이탈하는 현상이 영남지역은 13개 읍·면 중 3개 읍·면, 호남지역은 13개 면 중 12개 면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은 인접 지역 읍·면 쌍방 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다양한 친선 교류, 지리·지형적 영향 등이 지역주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의 강도를 우세 정당 지지 지수 차 평균값을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인접 읍·면 간 자매결연, 친선 활동 등 교류가 이루어졌거나, 이웃지역과 산, 강과 같은 지형적 장애요소가 없는 지역에서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의 강도가 강했다.

다만,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분석 단위인 영·호남 경계지역 읍·면에서 이웃한 지역에 의해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짐작에 대한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논문은 경계지역 읍·면에서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이 발견되었거나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만 타당성을 지니고 있을 뿐, 경계지역 거주자의 개인적 수준에 대한 지역주의 성향을 밝히지는 못했다. 둘째, 영남과 비교하여 호남에서 일방적으로 보여진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러한 일방적 현상은 무풍면, 설천면과 같이 영남에서 이주해 온 다수 주민들의 영향, 부항면, 대덕면과 같이 생활권이 인근 도시로 편입됨에 따른 인접한 소규모 면 단위 지역과 배타적인 교류 성향 발생 등을 원인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설문조사나 현장 참여 관찰을 활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행정구역상 경계지역에서의 지리·지형적 영향, 각종 교류 등에 의한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은 연구결과의 공고화 차원에서 이와 반대되는 성격을 지닌 지역에 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달리 말하면, 영남에서 동쪽 지역, 호남에서 서쪽 지역, 영·호남 도서지역 등과 같이 영·호남 지역에서 상호 간 지리·지형적 영향을 전혀 받을 수 없거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주의 투표 행태 분석이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계지역에서의 지역주의 투표 완화 현상을 모넨텀으로 한 지역주의 해소 방안 모색, 다양한 선거전략 구사 등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맞는 대안까지 도출할 필요가 있었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강민혜. 2022. “‘유세버스 사고’ 후 첫 지역 유세…부산 택한 安.” 『서울신문』 (2월22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2500076&wlog\\_tag3=naver](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2500076&wlog_tag3=naver) (2023/01/17 검색).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기정훈, 황주원, 유광철. 2010. “대학교 정책간의 공간적 이웃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소재 4년제 대학교 영문학과 졸업기준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26(2), 55-69.
- 김광구. 2003. “공간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의 탐색과 공간회귀분석(spatial regression)의 활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3(1), 273-294.
- 김광동. 2006. “자유기업원 정책제안” 『자유기업원』 (4월17일). [https://www.cf.org/bbs/bbsDetail.php?cid=policy\\_proposal&idx=23883](https://www.cf.org/bbs/bbsDetail.php?cid=policy_proposal&idx=23883) (2023/01/17 검색).
- 김국진. 2022. “무주군 윤석열 당선자 득표율 전북에서 최고인 이유는?” 『전북도민일보』 (3월13일).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402> (2023/01/17 검색).
- 김만흠. 1995.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28(2), 215-237.
- 김상현. 2017. “구례·광양·하동 모여 ‘섬진강 이웃잔치’.” 『전남일보』 (10월 26일). <http://www.jnilbo.com/53460971995> (2023/01/17 검색).
- 김성도.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기원 영호남 화합 해맞이.” 『경남도민일보』 (1월2일).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709#0BNb> (2023/01/17 검색).
- 김 욱. 2004. “17대 총선과 충청권 정치지형의 변화: 지역주의의 약화 및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7(1), 69-87.
- 김재한. 2007. “총선으로 본 지역주의: 영동·무주·김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4), 381-395.
- 김재홍. 2011. “생활권·경제권 불일치 시·도 간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4), 1305-1329.
- 김진하. 2010. “한국 지역주의의 변화: 투표행태와 정당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3(2), 89-114.

- 류재성. 2010. “제5회 영남지역 지방선거 결과 분석: 지역패권정당체계의 지속과 변화.” 『의정논총』 5(2), 189-223.
- 문용직. 1992. “한국의 정당과 지역주의.” 『한국과국제정치』 8(1), 1-18.
- 배민영, 이동수, 김현우, 곽은산. 2021. “이재명, 호남서 ‘집토끼 잡기’ 사활… 윤석열, 세종서 ‘충청 대망론’ 접화.” 『세계일보』 (11월29일).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28509743?OutUrl=naver> (2023/01/17 검색).
- 손호철. 1996. “수평적 정권교체, 한국정치의 대안인가.” 『정치비평』 1, 131-169.
- 엄기홍, 김재현. 2010. “지역주의 정치사회화의 제한적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 『의정논총』 5(2), 251-272.
- 오수열, 이계만. 2000. “동서지역갈등의 극복과 교류확대 방안.” 『한국동북아논총』 17, 91-111.
- 원한식. 1987. “한국정치에 있어서 영호남 지역감정.” 『사회과학논총』 3, 123-140.
- 윤성원. 2018. “김천 부항면-무주 무풍면 “상생 파트너.”” 『경상매일신문』 (5월17일).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08157&part\\_idx=270](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08157&part_idx=270) (2023/01/17 검색).
- 이방희. 2018. “남원시 산내면·함양 마천면 화합행사 열어.” 『전북도민일보』 (11월26일).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0546> (2023/01/17 검색).
- 이재목. 2018. “부모의 출신지와 자녀의 정치적 지역 연고.” 『미래정치연구』 8(1), 61-86.
- \_\_\_\_\_, 김기동. 2017. “SNS 사용과 지역주의 투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1(2), 47-68.
- 전용주, 차재권, 김은미. 2007. “정치사회화와 정치성향 형성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6(2), 97-132.
- 정승호. 2003. ““영호남 화합의 상징’ 남도대교 14일 준공.” 『동아일보』 (7월4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195290?sid=102> (2023/01/17 검색).
- 정재도, 이재목. 2018. “영남 지역주의 투표 행태의 변화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6(4), 59-92.

- 조기숙. 2000.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서울: 나남출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a. “17대 대통령선거 총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5114> (2023/01/17 검색).
- \_\_\_\_\_. 2008b.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5119> (2023/01/17 검색).
- \_\_\_\_\_. 2011a.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구별 개표자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4269> (2023/01/17 검색).
- \_\_\_\_\_. 2011b.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구별 개표자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4268> (2023/01/17 검색).
- \_\_\_\_\_. 2011c. “제17대 대통령선거 개표자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4263> (2023/01/17 검색).
- \_\_\_\_\_. 2011d.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자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4260> (2023/01/17 검색).
- \_\_\_\_\_. 2012a.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구별 개표결과.”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4330> (2023/01/17 검색).
- \_\_\_\_\_. 2012b.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구별 개표자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4314> (2023/01/17 검색).
- \_\_\_\_\_. 2012c.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5128> (2023/01/17 검색).
- \_\_\_\_\_. 2013. “제18대 대통령선거 총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5129> (2023/01/17 검색).
- \_\_\_\_\_. 2016a.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구별 개표결과 자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4879> (2023/01/17 검색).
- \_\_\_\_\_. 2016b.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5211> (2023/01/17 검색).
- \_\_\_\_\_. 2017a.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구별 개표자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4923> (2023/

01/17 검색).

- \_\_\_\_\_. 2017b. “제19대 대통령선거총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5223> (2023/01/17 검색).
- \_\_\_\_\_. 2020a.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구별 개표결과 자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5052> (2023/01/17 검색).
- \_\_\_\_\_. 2020b.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38933> (2023/01/17 검색).
- \_\_\_\_\_. 2022a. “제20대 대통령선거(재보궐 포함) 투표구별 개표결과.”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75508> (2023/01/17 검색).
- \_\_\_\_\_. 2022b. “제20대 대통령선거 총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90030> (2023/01/17 검색).
- 최두열. 2015. “섬진교 개통 80년만에 영호남 줄다리기.” 『경남일보』 (7월20일).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007> (2023/01/17 검색).
- 최장집. 1991. 『지역감정의 지배 이데올로기적 기능』. 서울: 학민사.
- 최준영, 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3), 375-394.
- 허귀용. 2013. “하동군, 영·호남 화합 ‘하동 광장’ 조성.” 『경남도민일보』 (2월7일).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692> (2023/01/17 검색).
- 홍재우. 2012. “아버지와 나는 다르다? 세대정치와 정치사회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난 대학생의 가족 내 정치사회화의 영향력.” 『21세기 정치학회보』 22(3), 183-211.

#### 영문 자료

- Anselin, Luc & Anil K. Bera. 1998. “Spatial Dependence in linear Regression Models with an Introduction to Spatial Econometrics.” *in Handbook of Applied Economic Statistics*, edited by Aman Ullah & David E. A. Giles, 237-289. New York: CRC Press.
- Dawson, Richard E. & Kenneth Prewitt. 1969. *Political Socializa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

- Johnston, R. J. & C. J. Pattie. 2002. "Campaigning and split-ticket voting in new electoral systems: the first MMP elections in New Zealand, Scotland, and Wales." *Electoral Studies* 21(4), 583-600.
- Johnston, Ron, Kelvyn Jones, Rebecca Sarker, Carol Propper, Simon Burgess & Anne Bolster. 2004. "Party support and the neighbourhood effect: spatial polarisation of the British electorate, 1991-2001." *Political Geography* 23(4), 367-402.
- Karp, Jeffrey A., Jack Vowles, Susan A. Banducci & Todd Donovan. 2002. "Strategic voting, party activity, and candidate effects: testing explanations for split voting in New Zealand's new mixed system." *Electoral Studies* 21(1), 1-22.
- Langton, Kenneth P. 1969.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obler, W. R. 1970. "A Computer Movie Simulating Urban Growth in the Detroit Region." *Economic Geography* 46, 234-240.

Abstract

## **Regionalist Voting Behavior in Administrative Border Areas: Focusing on the Yeongnam-Honam border area**

Jung Heui Park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ae Mook Lee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examines the regionalist voting behavior in the geographically adjacent Yeongnam-Honam border area, although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at the metropolitan level are different.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verify the regionalist voting relaxation phenomenon in the Yeongnam-Honam border area, where emotional communication is possible through daily life sharing and various friendly exchanges. To do so, collective data are examined with counting data for each voting district for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s held in Korea since 2000, and voter support patterns of regional dominant parties in the region a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collective data, First of all, it was possible to verify the regionalist voting relaxation phenomenon withdrawing from support for regional dominant parties in 15 of the 26 Eups and Myeons as the subject of analysis of the Yeongnam-Honam border area belonging to 9 Sis and Guns. Through this, it was validated that “Honam in Yeongnam, Yeongnam in Honam” actually exists.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is regionallist voting relaxation phenomenon did not affect between neighboring Eups and Myeons. Second of all,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sibility that various friendly affairs and geographical or topographical influences could affect regionalist voting behavior. The intensity of relaxation phenomenon was strong in which exchanges such as sisterhood relationships and friendly activities between neighboring Eups and Myeons were held, or in areas without topographical obstacles such as mountains and rivers.

Key Words: regionalism, voting behavior, regionalist voting relaxation phenomenon, administrative boundary areas